

슈어저·클루버 사이영상 수상

다저스 클레이튼 커쇼 슈어저에 밀려

맥스 슈어저(33·워싱턴 내셔널스)가 2년 연속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을 품어 안았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코리 클루버(31·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사이영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는 16일(한국시간) 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수여하는 '사이영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슈어저는 1위표 27장, 2위표 3장 등 총 201표를 받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로 뽑혔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소속이던 2013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한 슈어저는 개인 통산 세 번째로 사이영상을 따냈다. 2년 연속 사이영상을 수상한 것은 슈어저가 역대 10번째다. 올해 31경기에 등판해 200%이상을 소화한 슈어저는 16승 6패 평균자책점 2.5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WHIP)은 0.95,



워싱턴 내셔널스 맥스 슈어저·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코리 클루버(사진 왼쪽부터)가 사이영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피안타율은 0.178이다.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2위, 다승 공동 4위다. WHIP과 피안타율에서는 모두 내셔널리그 1위다. 288개의 탈삼진을 기록한 슈어저는 탈삼진 부문에서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27경기에 등판해 175이닝을 소화하며 18승 4패 평균자책점 2.31의 성적을 거둔 LA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29)는 슈어저에 밀리고 말았다. 커쇼는 투표에서 1위표 3장, 2위표 25장 등 총 126표를 받아 2위에 그쳤다.



클루버는 1위표 28장, 2위표 2장 등 총 204표를 받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2014년 사이영상을 수상했던 클루버는 3년 만에 다시 이 상을 거머쥐었다. 올해 29경기에 등판해 208%이닝을 던진 클루버는 18승 4패 평균자책점 2.25를 기록했다. 피안타율 0.183, WHIP 0.87에 불과했다. 아메리칸리그 다승 공동 1위, 평균자책점 1위, 피안타율과 WHIP에서는 모두 1위에 올랐다. 탈삼진 부문에서는 265개로 2위다. /뉴시스

LA다저스, 홈런왕 스탠턴 영입 위해 류현진 트레이드 대상에 포함할 수도

월드시리즈 우승을 놓친 LA 다저스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홈런왕 지안클로 스탠턴(28·마이애미 말린스) 영입을 위해 류현진(30)을 포함한 선발 자원을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저스 다이제스트'는 16일(한국시간) 다저스가 2018시즌 다시 한 번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스탠턴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트레이드가 이뤄질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스탠턴은 2014시즌 첫 홈런왕을 차지한 뒤 마이애미와 13년간 무려 3억 2500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올 시즌에는 159경기에서 59홈런을 때려내며 두 번째 홈런왕에 올라 마이애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이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보스턴 레드삭스 등이 스탠턴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저스 역시 그냥 지나칠 생각은 없다. '다저스 다이제스트'는 스탠턴 영입을 위해 다저스가 제시할 수 있는 카

드를 정리하며 "마이애미는 다저스의 영건들에 관심을 갖기"이라며 "(최고 유망주) 워커 볼러를 내주지 않겠지만 아이디어 알바레스, 더스틴 메이, 브록 스튜어트 등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애미가 유망주 대신 즉시 전력감을 원할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기에는 류현진을 비롯해 브랜던 매카시, 스캇 카즈머 등 익숙한 이름이 대거 거론됐다. 류현진과 매카시, 카즈머는 올 시즌 다저스에서 선발 경쟁을 벌였다. 선발 자원이 차고 넘치는 다저스가 아닌 다른 팀이었다면 확실한 선발 카드다. 이 매체는 "마이애미로서는 장기 계약의 부담이 없고, 다저스도 연봉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스탠턴은 서부에 있는 우승권 전력의 팀으로 이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시즌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한 다저스는 이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뉴시스



아직은 불확실한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월드시리즈 우승에 실패한 다저스가 내년 시즌 우승의 한을 풀기 위해 스탠턴 영입에 사활을 건다면 상대적으로 탄탄한 투수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류현진은 올 시즌 25경기(24경기 선발)에 등판해 126%이닝을 소화하며 5승 9패 평균자책점 3.77을 기록하며 부상 이후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내년 시즌은 다저스와 6년 계약 마지막 해다. FA(자유계약선수)를 앞둔 류현진이 다저스가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저스티스 리그' 흥행 시동... 개봉 첫 날 1위

DC엔터테인먼트의 새 히어로 영화 '저스티스 리그'(감독 잭 스나이더)가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저스티스 리그'는 전날 1198개관에서 4165회 상영, 13만4661명을 불러 모아 박스오피스 선두를 달리던 '해피 데스 데이'(6만9061명)를 한계단 주저앉히며 정상에 올랐다. 이날 매출액은 12억5700만원, 매출 점유율은 41.2%였다. 이번 작품은 '맨 오브 스틸'(2013·218만명)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2016·225만명) '원더우먼'(2017·216만명)으로 이어지는 DC엔터테인먼트의 새 영화다. 배트맨·슈퍼맨·원더우먼,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새로 등장하는 아쿠아맨·플래시·사이보그가 슈퍼히어로 팀을 만들어 적과 맞서는 과정을 담았다.



DC엔터테인먼트의 새 히어로 영화 '저스티스 리그'(감독 잭 스나이더)

흥행세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이날 오전 8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 9만3363명으로 예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예매 점유율은 49.5% 예매 매출액은 9억6400만원이다. 한편 이밖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3위 '7호실'(9만1658명, 누적 6만2371명), 4위 '보트라그노르크'(3만1377명, 439만명), 5위 '부러더'(2만583명, 136만명) 순이었다. /뉴시스



진안군청 박민호 선수 한·일 친선역도대회 3관왕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신에 박민호 선수가 한일 국제 친선역도경기대회에서 남자 85kg급 정상에 올랐다. 박민호 선수는 지난 12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상 147kg, 용상 180kg, 합계 327kg을 들어 3관왕에 올랐다. 지난 7월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이번 대회 출전 자격을 얻은 결과다. 올해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에 영입된 박민호는 뛰어난 지도와 고된 훈련을 통해 기량이 월등히 향상되었다. 박민호 선수는 "감독님의 훌륭한 지도와 매일 진안흥삼을 먹으며 연습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충실한 훈련과 실력향상으로 전국체전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트와이스, 일본 내 한류 재점화 주도

한해 최고의 가수들만 출연 '홍백가합전' 무대 올라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K팝 한류 재점화를 주도하고 있다. 16일 니칸 스포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올해 연말 방송되는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2월31일 열리는 '홍백가합전'은 그해 최고의 가수들만 설 수 있는 대중음악프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카라를 비롯해 조용필, 김연자, 보아 등이 출연했다. 트와이스가 홍백가합전 출연을 확정하면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가 출연한 2011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가수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다. 그간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일본 내 한류가 식었다. 동시에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한류 가수 출연과 한국 드라마 방송이 드물었다. 하지만 트와이스는 소녀시대, 카라에 이어 일본에서 제2의 한류 걸그룹 붐의 재점화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현지 첫 오리지널 싱글 '원 모어 타임'을 통해 한국 걸그룹



중 최초로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싱글 인증을 받았다. 25만장 이상 판매량을 기록한 싱글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앞서 트와이스는 지난 6월 28일 발표한 일본 데뷔 베스트앨범 '#트와이스(TWICE)'로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앨범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JYP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걸그룹이 플래티넘 싱글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면서 "아울러 같은 해 싱글과 앨범 모두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것 역시 한국 걸그룹으로서의 최초"라고 자랑했다. 이와 함께 또 한국 걸그룹 최초로 트와이스가 표지 모델로 나선 일본 인기 매거진 '논노(non-no) 트와이스' 편이 지난달 17일부터 23일 기준 일본 대형 서점 초타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